



**ADMA**

on line

2025년 1월



토리노 발도코 월간 메시지

# 요약

## 사설

- 3

마리아의 인도를 따라가는, 희망의 순례자.

---

## 양성 여정

- 4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5. “나는 당신을 흠송합니다.(아침기도)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시작하기”.

---

## 친숙한 문자

- 6

여성으로서.

---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7

1월 8일: 복자 티투스 제만 살레시오회 사제, 순교자.

---

## 가족연대기

- 9

- 푸에르토 리코의 아드마.
  - 아르헨티나 에스테로 산티아고가 아드마 증서를 받다.
  - 우루과이 - ADMA 연례만남.
  - 브라질 - 브라질 관구 아드마 만남 - 캄포 그란데
- 

## 월간 기도지향

- 10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http://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 마리아의 인도를 따라가는, 희망의 순례자



우리는 믿음과 희망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한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5년,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은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온 세계를 포용하고 어린이와 젊은이, 현재와 미래의 젊은 얼굴을 찾으라는 사명을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오늘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면서, 그리스도와와의 온전한 만남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 발걸음의 안내자로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희년이면서 또 살레시오적**인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젊은이들과 평화의 노선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참된 희망의 순례자가 됩시다.

**성모님의 보호와 성령의 이끄심 아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로 정하셨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해와 일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기쁨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성년은 평화와 정의, 형제적 만남을 부르짖는 세상 안에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희망에 닳을 내리고 젊은이와 함께 걷는 순례자들”이라는 2025년 생활지표는, 희망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도전에 용기와 기쁨으로 맞설 수 있는, 살아 있고 변화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의 동반자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경축하는 새해 첫 달 첫 날에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어머니이시며 안내자이신 마리아는, 이 희년의 여정에서,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의 교육과 사목적 사명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첫 순례자이신 성모님은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과 희망의 굳건한 닳을 내리라고 가르치십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징과 빛의 등불이 되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에 동행하셨던





## 양성 여정

###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 5. “나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아침기도)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시작하기”

올해 우리는, 매달 한 가지씩 그리스도교 기도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도이지만, 그 내적인 깊이는 잘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며, 어쩌면 우리가 소홀히 했던 기도를 매일 바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여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밤에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고,  
당신의 은총이 항상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소서.  
아멘.

**나의 하느님, 당신을 흠송하며,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은 그 말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을 흠송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주님, 누가 감히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흠송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온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지의 선언을 넘어 기도문에서 말하는 대로 살라는 끈질긴 초대와 촉구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 말함으로써, 조금씩 그분을 진지하게 사랑하기 시작하고, 의지로 말한 말씀에 점차적으로 충실하게 되면서, 그 단어의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 전체의 지향을 나타내는 동사인 나는 당신을 흠송합니다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은 많은 사람에게 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만, 흠송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당한 것이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을 흠송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즉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흠송과 사랑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흠송할 수 없고, 하느님의 것에 대한 맛과 기도의 맛도 잃어버리게 되며, 마침내 피조물에 대한 사랑마저 쓰고 말면 그만이라는 물건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흠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흠송은 올바른 질서 위에 애덕이 보존되게 해줍니다.

**저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밤에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존재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무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새롭게 하라고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지닌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마태 5,3 참조).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하잘것없는 일에서조차 기뻐하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흠송)은, 거만하고 오만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느님과의 이 맛있는 우정이 없다면, 모든 좋은 것들은 시들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물의 기본 조건인 생명의 선물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해도,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행복합니까? 나는 세례받은 이로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교리교사로서 새로운 세대에 제안하는 신앙을, 무엇보다 먼저 깊이 있게 살고자 하는 생생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성찰을 조금 더 확장시켜 봅시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서 사라지신다면, 나는 과연 하느님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까요?

**하느님, 당신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행위를 봉헌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의탁하며 드리는 아침기도이므로, 주님께 흠송을 드리며, 하루를 봉헌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경이로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 미리 봉헌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행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아침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녁에 그것들을 바구니에 모아 당신께 드리겠다고, 주님께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그분께 봉헌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 불완전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평화를 얻고 행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하지만 새로운 하루의 모험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기도의 순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최고의 선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악을 멀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간청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루카 11,9~13).

이러한 인식은 투쟁의 심각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온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모든 악을 이기셨으므로, 악보다 더 강하신 그분께로 나아합니다. 자신을 쳐 이기겠다고 위협하는 악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을 믿고 무모하게 혼자 나서지 않으며, 십자가의 그늘에 피신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끈질긴 기도만이 수년간의 노력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나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라는 이기도는 감미로운 말로 이렇게 끝냅니다. **당신의 은총이 항상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소서.** 이 기도의 목적, 우리가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 하느님의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삼위일체적 삶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며, 매순간 그분과의 달콤한 우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며, 따라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당신의 은총이 항상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소서.**

마르코 파네로 신부, SDB



## 친숙한 문자

# 여성으로서



여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남성과 여성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아, 단지 ‘사회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여성의 실종

전문가들은 ‘여성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젠더의 패배’ 등 불안한 제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명의 종말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분노를 어머니의 보호 역할로 대체하는 ‘모계중심’ 문화의 도래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마음 없는 규칙과 규칙 없는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양쪽 모두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한 해방적 성취의 대가는 매우 큼니다. 여성의 몸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상품화되고, 의료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들이 여성성을 획득한다고 하면서 여성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자드의 말처럼 결국 ‘페미니즘은 여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수평적이고 원형적이며 표현적인 것을 선호하여, 수직적이고 직선적이며 긍정적인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는 문화에 의해 비난받고, 그렇지 못한 남성들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열성적인 남성과 공격적인 여성은 궁극적으로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고 평온했던 남녀 관계는 곧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호주의 문화** 인 남성주의와 페미니즘은 인류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남성 우월주의적 전체주의에 대해 여성의 단순한 자기 결정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반대의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피임법의 발달로 인해 여성성과 모성의 분리는 여성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고 내가 관리한다’는 말은 더 이상 1960년대의 꿈쩍한 슬로건이 아니라, 여성 인구의 많은 부분의 주된 사고방식이자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부의 몸은 기증된 몸이고, 엄마의 자궁은 관리가 아닌 임신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남성주의와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본질, 즉 상호 존중, 사랑, 봉사를 통해서만 서로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최소한의 상호 존중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겸손하게 경탄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3세기 동안 세속주의 문화는 인간을 ‘주체’로 말해 왔으며, 가톨릭 문화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주장해 왔고, 이로 인해 자유를 ‘자율’로 해석하게 되어, 신체의 한계, 성별의 차이, 가족력, 시민적 유산, 종교적 소속 등 모든 구체적인 것을 망각하는 개인주의의 손에 돌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로틱하면서도 무성애적인 사회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극은 많지만 이를 처리할 능력은 거의 없고, 강렬한 애정과 불안정한 유대감, 책임감 없는 자발성, 부모로서의 관계에서 분리된 부부애를 의미합니다.

진실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주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같은 사랑의 능동적인 차원과 수용적인 차원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경직된 구분을 벗어나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었고, 여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사랑 안에서 항상 구별되며 결합되는데, 남성성은 주로 구별하려는 경향(즉, 더 외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며, 이해, 측정, 정의, 계획, 변형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여성성은 주로 결합적인 경향입니다(즉, 더 내면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며, 이해, 결합, 동반, 성숙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반면, 여자는 사랑 자체의 부드러움을 더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남자 덕분에 여자도 강해질 수 있고, 여자 덕분에 남자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영역이 아닌, 서로 베푸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 여성의 뛰어남

위대한 정교회 신학자 중 한 명인 에브도키모프가 ‘문명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여성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듯이, 여성의 재발견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 친숙한 문자

또한 우리가 즐겁게 읽을 만한 책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책의 저자인 코스탄자 미리아노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여성의 ‘복종’(에페 5장)은, 여성이 지닌 품어주고, 지지하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능력인 ‘열정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여성의 존엄에 관한 놀라운 회칙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남자, 즉 인간 전체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인간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살핌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반복해도 지칠 수 없듯이, 교회는 동정녀요, 신부요, 어머니이십니다.

여성성과 동정성, 여성성과 모성의 심오한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결혼이 줄어들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인 말과 삶으로 이를 증거하는 이는 아름답습니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처녀”, 즉 내적 일치와 관계의 온전함이 가능함(성녀 카타리나의 열정과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신부”,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성녀 브리짓다가 떠오릅니다), 자연적인 다산을 넘어선 여성적 성숙과 충만함인(데레사 수녀의 국경 없는 다산),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렐리 신부,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친숙한 문자)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1월 8일: 복자 티투스 제만 살레시오회 사제, 순교자



복자 티투스 제만의 삶은 슬로바키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젊은 살레시오회 수도자들이, 돈 보스코에게 충실하면서, 그들의 성소를 지키고자,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입니다.

슬로바키아 살레시오회

회원인 티투스 제만은 1915년 1월 4일 브라티슬라바 인근 바노리의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세 때부터 사제가 되기를 원했고, 사슈틴, 흐론스키 스베티 벤아딕, 프리탁 우 홀레소바에 있는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문법을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1931년 수련기를 시작했고, 1938년 3월 7일 로마의 예수성심 성당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키에리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오라토리오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1940년 6월 23일 토리노에서 마우리시오 포사티 추기경 주례로 그토록 바라던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1940년 8월 4일, 바노리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1950년 4월 13일과 14일 밤, 공산주의 정권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도회를 금지하고 군인들이 수녀원과 수도원을 점령하여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을 강제수용소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 비극적인 밤을 “야만인의 밤”으로 부릅니다. 섭리로 제만 신부는 쉼크비체 교구 본당에 머물게 되어 투옥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살레시오회 회원인 어니스트 마카크 신부는, 젊은 회원들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게 하여, 이탈리아로 밀입국시켜, 토리노에 있는 살레시오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었을 때, 조국을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만은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하는 비밀 통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30명 이상의 젊은 살레시오회 회원들을 위해 두 차례의 원정을 조직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던 일부 교구 사제들도 참여한 세 번째 모험에서 그는 대부분의 참여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문을 받는 동안 체포자들은, 그를 구타했으며, 치아도 부러뜨렸습니다. 제만 신부는 자신이 직접 폭력을 체험하고 동료 사제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을 목격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해외 탈출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티투스 신부는 ‘그들이 나를 끌고 갔을 때, 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전 구금기간 동안,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감방 문이 열릴지, 그들이 언제 저를 처형 장소로 데려갈지 모르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문 중에 겪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떠올리면 지금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저를 구타하고 고문할 때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 제 머리를 담그고 질식할 때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 온몸을 강하게 발로 걷어차고 어떤 물건이든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맞고 나면 며칠 동안 저는 귀가 멍멍하여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바티칸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가혹한 재판을 받았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1952년 2월 22일, 그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오직'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무쿨', 즉 '제거 대상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약 13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1964년 3월 10일, 가석방과 여러 차례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 출소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의 건강은 너무나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살면서 섬유창고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 후 창고업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는, 5년 후 1969년 1월 8일, 순교와 거룩함의 영광스러운 명성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도와준 사람 중 단 한 명만이라도 그로 인해 사제가 될 수 있었다면, 내가 한 일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티토 신부가 국경을 넘어 비밀리에 성소를 가진 젊은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통해 보여준 헌신과 용기, 희생은, 그가 성소 구원을 위한 순교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제임을 보여줍니다.

부당하게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사제직과 교육자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나 사회생활을 통해서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한 사목자의 본보기이며 모델입니다. '항상 돈 보스코의 모범을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 기도

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티투스 제만 신부를 부르시어, 성 요한 보스코의 카리스마를 따르게 하셨나이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보호 아래 그는 사제이며 청소년의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존경받았습니다.

교회의 적들이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티투스 신부는 용기를 잃지 않았으며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살레시오 성소에 충실했으며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한 이유로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고문하는 이들에게 저항했으며 이로 인해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충실한 종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의 중재로 -----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 SDB**

(출처: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하늘에서 별처럼)





## 가족연대기

### 푸에르토 리코의 아드마

푸에르토 리코 아드마가 아드마 증서를 받았다.

윌프레도 신부(SDB)는 본당 사제인 오마르 신부와 함께 미사를 집전했다.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매우 아름다운 축하 행사였다.



### 아르헨티나 에스테로 산티아고가 아드마 증서를 받다

2024년 11월 23일과 24일에 ARN아드마 관구위원회는 양성과 형제적 만남을 위해 산티아고의 에스테로에 머물렀습니다(리오 테르 세로, 알타 그라시아, 코르도바 및 투쿠만 출신). 미사 중에 올란도 산케츠 신부(영적활성자, SDB)는 알렉스 아레나 신부(산티아고 에스테로의 아드마 영적활성자)와 지회 회원들의 손을 잡고 아드마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자리였으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우루과이 - ADMA 연례만남

2024년 11월 17일, '우루과이 사라디 델 이'에서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연례만남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성찰, 기도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현존이 함께 한 하루였습니다. 이 만남에는 ADMA 국가영적활성자인 호세 코레아 신부와 사라디 델 이 본당 홀리오 곤살레스 신부가 함께 했습니다.





## 브라질 - 브라질 관구 아드마 만남 - 캄포 그란데

브라질 캄포그란데 - 2024년 11월 - 브라질 캄포그란데

관구(BCG)의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회원들이 지난 11월 9일 캄포그란데 도움이신 마리아 본당에서 모임을 갖고 회칙에 대한 나눔과, 연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행사에는 관구의 지회를 대표하는 55명의 ADMA 지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BCG 관구장 리카르도 카를로스 신부는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구장 외에 공동체 원장 페드로 보르헤스 신부, 이 모임을 조직한 아우구스토 이사오 키안 신부, 인다폴리스(MS) 원장 알베르토 알베스 데 예수 신부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에 대한 정보전달과, 다음에 개최될 필리핀 국제대회에도 초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사와 기도, 지회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2025년 3월 23일~24일, Chapada dos Guimarães (MT)의 “Casa do Sonho”에서 열리게 될 피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 월간 기도지향

##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주민, 난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가 항상 존중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